

# 오피니언

## 어린이 날 특별기고

김옥애



몇 달 전 비슷한 나이 또래의 만남이 있었다. 여덟 명의 여자들이 모여 진지하게 대화 이야기를 나눴다. 그때 한 사람이 손전화를 담겨진 자기 손자의 얼굴을 내밀었다. 그걸 본 옆 사람도 또 그 옆 사람도 슬그머니 손 전화를 꺼냈다. 그러곤 화면에 찍혀있는 자기 손자의 모습들을 내비쳤다. 우리 아이들의 귀여운 얼굴을 돌아가면서 들여다봤다. 물론 나도 내 손녀의 한복 입은 모습을 그들 앞에 내밀었다. “보세요. 나도 가지고 다녀요. 우리 손녀 너무 예쁘죠?”

“난 집에서 손자가 늘 보고 싶은데 머리가 아이 공부 시킨다고 보내 주질 않아요.”  
“아이를 하나 더 만들지 그래요.”  
“그러게요. 그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손자처럼 예쁜 아이는 없을 것 같다는 그 말에 나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왜 그렇게 예쁘지? 혼자 묻고 답을 썼다. 그들이 새싹이기 때문이다. 유아나 어린이들이기 때문이다.  
동물의 왕국 같은 프로그램에서도 새싹들은 감동을 준다. 어린 강아지나 고양이 새끼들. 동지에서 입을 벌리고 모이를 받아먹는 새 새끼들, 코끼리 무리의 보호를 받으며 걸어가 아기 코끼리 등등. 그들을 만나게 되면 저절로 눈이 멈춰진다. 귀엽고, 앙증맞고 그저 예쁘다.  
식물도 마찬가지. 요즘이 바로 새싹의 계절이다. 겨울의 나무 가지에서 임태된 어린 잎들을 보면 희망이 솟아난다. 그 아

름다움에 도취되어 신록 예찬을 읊는다. 하물며 짐승도 아니고 식물도 아닌 ‘사람 새싹’은 오죽하겠는가.  
그런데 언제부터였을까? 사람새싹 숫자가 늘지 않고 있다. 나라에서 갖은 대책을 세워도 빈축만 성과가 없어 보인다. 내 고향에서는 산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산부인과 병원을 모신다는 광고까지 나왔었다. 고을에 살고 있는 산모들의 복지를 돕기 위해서다.  
또 셋째를 낳으면 일년에 칠백 이십 만 원의 지원금까지 주겠다는 약속도 내걸었다. 사람새싹을 늘리기 위한 이런 배려와

하다. 가족의 형태도 다양해졌다. 다양해진 만큼 자신들의 직업에만 충실하려고 한다. 그래서 아이들의 수도 두 명, 한 명, 아니면 전무의 상태다.  
생명의 달 오월이다. 그리고 공휴일인 어린이날이다. 삼십대나 사십대를 살아가는 분들은 이날 새싹의 의미를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일이다.  
어느 기관에서 금년 어린이날 선물을 무엇으로 받고 싶은지에 대해 물었다. 어린이들 응답 일위가 디지털기이었다고 한다. 아이들은 손 전화나 게임기나 노트북을 가장 받고 싶어 했다. 나도 기관의 흥대를 내어 손녀에게 어린이 날 받고 싶은 선물을 물었다. 그랬더니 대답 주문이 들어왔다.  
“할머니, 난 패밀리 랜드에 가고 싶어요. 그리고 동생 하나 주세요.”  
물건일 줄 알았는데 의외의 대답이다. 아이가 원하는 대로 패밀리 랜드에 갔다. 어린이날은 교통이 복잡할 것 같아 주말인 오월 첫날에 다녀왔다. 화창한 봄날 아래 코끼리도 타고 코끼리에게 먹이도 주면서 흥겨운 시간을 보냈다. 기린이 살고 있는 집엔 어느 새 새싹이 움터 있었다. 아기 기린이 태어나 새 식구가 느긋하게 걸어 다녔다. “기린, 축하해.”  
패밀리 랜드 구경을 마치고 돌아왔지만 나머지 하나는 내 능력 밖의 일이다. 그것은 부모의 몫이다. 그러므로 손녀가 언제 그 예쁜 선물을 받게 될지 기약이 없다.  
(동화작가)

## 예쁜 선물

조건을 전혀 들으면 입이 딱 벌어진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부럽기도 하고 꿈만 같다. 가난 속에서 아이들을 일곱, 여덟 씩 낳아 기르던 우리 부모님들은 전설 속의 삶을 살았던 것만 같다.  
나도 팔남매 중 여섯째. 그 팔남매들은 모두 결혼을 해서 아이들을 낳았다. 그런데 낳은 아이들의 수가 부모에 비해 반도 못 넘는다. 세 명이나 두 명, 아니면 한 명 정도였다. 그 아이들이 자라서 지금의 삼십대, 사십대가 되어 있다.  
그들은 대체적으로 똑똑하고, 개성들이 강하다. 특식으로 살겠다는 등 결혼은 하더라도 아이를 안 낳겠다는 등, 남더라도 딱 한 명만 키우겠다는 등 계산들이 철저

## 시설

### 군 개혁·기강확립 실천이 중요하다

이명박 대통령이 어제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를 주재했다. 대통령이 육·해·공군의 주요 지휘관 전원이 참석한 회의를 주재하기는 건군 이래 처음이다. 그만큼 청와대가 천안함 사태로 드러난 안보 위기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날 이 대통령은 “천안함 침몰 원인이 밝혀지지 전이라도 우리가 즉각 착수해야 할 일이 있다”며 “우리의 안보 태세를 전면적으로 재점검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또 변화된 안보상황과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군의 환골탈태를 주문했다. 군의 개혁과 해신, 기강확립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김태영 국방장관도 이 자리에서 “천안함이 침몰한 3월26일을 ‘국군 차욕의 날’로 인식하고 정신 재무장을 통해 강한 군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천안함 사건 발생부터 수습하기까지 드러난 우리 안보태세의 취약점과 혼란상은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주기에

충분했다. 군의 보고 체계, 지휘부 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 국가안보태세 재점검과 군 개혁은 시급한 국가현안이다. 세계 유일의 적대 분단 상황이 있는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비대칭 전력 강화도 서둘러야 한다.  
무엇보다 군 스스로 내부 문제점을 속속들이 들춰낼 필요가 있다. 현재 진행 중인 감시자 전이라도 우리가 즉각 착수해야 할 일이 있다”며 “우리의 안보 태세를 전면적으로 재점검하는 일”이라고 밝혔다. 또 변화된 안보상황과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군의 환골탈태를 주문했다. 군의 개혁과 해신, 기강확립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김태영 국방장관도 이 자리에서 “천안함이 침몰한 3월26일을 ‘국군 차욕의 날’로 인식하고 정신 재무장을 통해 강한 군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천안함 사건 발생부터 수습하기까지 드러난 우리 안보태세의 취약점과 혼란상은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주기에

### 총장 직선제 ‘손질’ 또다른 갈등요인 안폐야

전남대와 조선대가 총장 직선제 개선 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한다. 광주·전남지역의 대표 국립·사립대학이라 할 수 있는 양 대학의 이 같은 움직임은 대학은 물론 지역교육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민의 관심을 끌고 있다.  
양 대학이 구상하고 있는 총장 선출 개선안은 직선제를 유지하되 총장후보자 추천위원회와 간접선거인단 선거 등을 통해 1차에서 후보자를 2~3명 선출시켜 이후 최종 선출하는 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마디로 간선제와 직선제를 혼용하겠다는 것이다.  
총장 직선제는 1980년대 후반 민주화의 성과물로 각광을 받았다. 그동안 대학 운영에서 재단의 전횡을 막고 다수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학내 민주화를 이룩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해왔다.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시행과정에서 적잖은 폐단을 불러 온 것도 사실이

다. 우선 과열 선거운동에 따른 교육·연구 분위기 저해 및 잡음과 혼탁, 교수사관주·전남지역의 대표 국립·사립대학이라 할 수 있는 양 대학의 이 같은 움직임은 대학은 물론 지역교육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역민의 관심을 끌고 있다.  
양 대학이 구상하고 있는 총장 선출 개선안은 직선제를 유지하되 총장후보자 추천위원회와 간접선거인단 선거 등을 통해 1차에서 후보자를 2~3명 선출시켜 이후 최종 선출하는 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마디로 간선제와 직선제를 혼용하겠다는 것이다.  
총장 직선제는 1980년대 후반 민주화의 성과물로 각광을 받았다. 그동안 대학 운영에서 재단의 전횡을 막고 다수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학내 민주화를 이룩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해왔다.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시행과정에서 적잖은 폐단을 불러 온 것도 사실이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송민석



선거철이다. 그것도 가장 많은 후보가 난립하는 지방선거에다 교육감선거까지 치러진다. 선거철이면 한류 행거리는 집단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난다. 요즘처럼 여론조사 기관과 접점이 문전성시 이를 때도 없을 성싶다.  
여기저기서 붓물처럼 쏟아져 나오는 여론조사 중에 우리 지역 교육감선거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언론사와 조사기관에 따라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광주·전남 교육감 여론조사가 들쭉날쭉해 과연 믿음만한가라는 의문

의 어원이 “민중의 소리는 신의 소리”라는 로마의 격언에서 유래되었다고 하나 그 의미가 무색하기만 하다.  
일부 여론조사의 경우 수사와 고발을 당하는 등 전국적으로 공정성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음을 본다. 또 일간지 대 표는 지방선거 여론조사 결과를 특정후보에 유리하게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여 검찰에 긴급 체포된바 있다. ‘여론조작은 표도독질’이란 말도 있다.  
정확한 여론조사란 시간과 비용이 들더라도 각 연령층별 후보들의 지지도, 남자와 여자, 화이트칼라와 블루칼

### 인지도와 지지도는 구별되어야 한다

이 든다. 민심의 거울이라는 여론조사가 오히려 지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교육관련 조사자도 잘 모르는 인물이 1위를 하는가 하면 조사기관이 바뀌면 최하위에 떨어지는 등 조사기관마다 터무니없는 차이를 보이니 누가 믿겠는가.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녹음된 음성을 들려주는 ARS조사 응답률이 고작 5% 정도라고 한다. 마지못해 응답한 이 중에서도 ‘잘 모르겠다’는 비율이 절반을 넘을 경우도 많다. 나머지는 대충 대답하거나 한번이라도 들은 적이 있는 사람을 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본선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런 엉터리 여론 조사를 발표해놓고, 그 관세를 투표일까지 고착화시키려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선다.  
후대폰이 아닌 일반전화를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에서 낮에 집에 있는 노약자나 전업주부들이 조사에 응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표본이라는 것은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되는 것인데, 현실적인 한계가 바로 이 점이다. 그러니 표본대상은 어느 한쪽으로 편중될 수밖에 없다. 여론이란 말

라, 직장인과 농어민 간의 여론주의 등이 어떤지도 알아야 한다. 여론조사를 보는 안목 역시 조사문항과 표본추출, 응답률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인지도에만 의존하는 여론 조사는 문제가 많다. 아무리 조사를 잘한다고 해도 널리 알려진 전직 단체장과 아직 잘 모르는 새로운 후보 중에서 누구를 지지하겠느냐는 여론 조사를 하게 되면 당연히 단체장이 1등을 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지지도가 아니라 인지도라는 점이다. 이름과 얼굴이 잘 알려진 전임자가 득표권을 행사함으로써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참신한 신인의 등장을 어렵게 하고 있다.  
시군으로 갈수록 지역신문들 중에서는 낮은 수준의 여론조사기법을 통하여 얻은 결과를 마치 신통력 있는 예측이라도 되는 것처럼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경우를 본다.  
선거란 ‘될 사람’보다 ‘되어야 할 사람’을 뽑아야 한다. 제발 득표권자가 가진 인지도를 지지도라고 우기는 일은 더 이상 하지 말았으면 한다.  
(UNIST입학사정관·전 여천고 교장)

광주일보는 '오피니언'면 기고중 분기별 최우수작을 선정해 '은평상'을 수여 합니다. 은평칼럼은 이들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평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실는 코너입니다.

◇ 채택된 원고는 고료 드립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민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도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 기고

임경한



2010년은 특별히 기념하고 기억해야 할 역사적 사건이 많다. 굵직한 국가주요 기념사업만 해도 4·19혁명 50주년, 5·18민주화운동 30주년, 6·25전쟁 60주년, 경술국치100주년, 광복군 창군70주년, 청산리대첩 90주년 등이다.  
올해는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조선이 식민지가 되었던 이른바 한일 합병 100주년이 되는 해이니 그 동안 논란 많았던 과거사 청산의 무게도 더욱 무겁게 느껴진다. 그리고 국치의 일기 일어나기 10개월전 만주 하얼빈 역에서 조선의 초대 통감을 지낸 이토히로부미를

시킴기도 했다. 1903년 이른바 용암포 사건을 계기로 일본은 1904년 2월 러시아에 선전포고를 했다.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이듬해 ‘을사조약’(을사늑약)을 강요,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고 통감부를 설치했다.  
초대 통감은 이토히로부미였다. 이로 인해 군대를 조선에 파병하고 1907년 7월 고종의 강제 폐위에 이은 군대의 강제 해산이었다. 이러한 민족적 위기 속에서 일부 애국군인들이 의병부대에 가담했다. 당시 의병 작전을 수행한 조선 주치군사령부가 발간한 통계에 의하면

### 경술국치 100년과 안중근 의사 순국 100년

적격하여 숨지게 한 안중근 의사 순국 100주년이 되는 해이다.  
현장에서 체포된 안 의사는 일본 영사관으로 인계돼 1910년 2월 14일 관동도독부 지방법원에서 사형언도를 받고, 그 해 3월 26일 여순 감옥에서 교수형을 당했다. 안 의사의 순국을 세삼스럽게 되새겨야 할 것은 그의 순국이 던진 역사적 교훈이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의미하기 때문이다. 안 의사는 1879년 황해도 해주읍 토착 향반 집안에서 태어난 28세가 되던 해인 1906년 봄 진남포로 이사하여 삼흥학교와 동의학교를 세워 청년교육과 계몽운동을 전개했다.  
그러나 지식인 중심의 계몽운동에 한계를 느낀 안의사는 마침내 무장투쟁을 결심하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으로 망명해 의병부대 창설을 주도했다. 이러한 와중에 1894년 청일전쟁의 계기로 조선을 무단 침탈한 일본은 민씨정권을 몰아내고 대신 친일파 정권을 앉혔다. 반일적 성향의 명성황후를 시해하고 단발령을 강행해 민중의 반일감정을 촉발

1907~1911년까지 무려1만7천명이 사망했다.  
안 의사가 초대통감을 지낸 이토를 지목, 저격한 것은 바로 일본군의 남한 대토벌이 막바지에 이른 1909년 10월 26일. 안 의사의 하얼빈 투쟁은 일제의 침략에 의한 무고한 조선민중의 희생과 의병투쟁을 통한 국권회복운동이 절박한 상황에 이르자, 그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절박한 수단으로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사로운 이익을 보거든 정의를 생각하고 위태로움을 보거든 목숨을 바쳐라’ 영원히 살아있는 대한국민 안중근 의사 순국 100주년을 맞아 의사의 국조 독립, 사회정의, 동양평화 정신은 창조적으로 계승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이를 계승해야 희망의 노를 저어 더 큰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선열들의 나라사랑정신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부끄럽지 않게 후손이 될 수 있도록 전 국민이 힘을 모아 도약해야 할 것이다.  
(국립 5·18민주묘지관리소 부소장)

### 어린이 보호구역 감속운행 생활화해야

어린이들은 행동반경이 넓고 예측불허의 행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마땅히 운전자의 행동의 보호가 필요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운전자는 도로 위의 어린이들을 교통안전으로부터 외면하고 있는 것 같다.  
정부에서는 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들의 통행이 잦은 학교 주변을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이 구역 내에서 시속 30km이하로 서행하도록 정하

고 있지만, 여전히 운전자들의 가속페달은 속도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운전자들은 도로 위의 어린이들을 각별한 주의와 보호가 필요한 대상으로 인식하고, 항상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는 감속운행을 생활화해야 한다. 또, 통학로 주변의 불법주차 등으로 인해 어린이가 불의의 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안전운전을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김진미·광주시 서구 치평동

## 無等鼓

삼별초(三別抄)는 고려 무신정권 때 최우가 도독을 막기 위해 설치한 야별초(夜別抄)에서 유래한다. 삼별초는 야별초를 물로 나온 좌별초·우별초와 몽고에 포로로 잡혔다가 탈출한 병사들이 신의군으로 구성됐다.  
삼별초의 항쟁은 1270년부터 1273년 사이에 강화도에 있던 삼별초가 진도, 제주도로 근거지를 옮겨가며 몽고와 고려의 친몽세력에 반대하여 일으킨 항몽투쟁을 말한다.  
삼별초가 진도를 새로운 거점으로 정하게 된 이유는 큰 섬일 뿐 아니라 농·수산물 이 풍부하고, 명량해협에서 해로를 차단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였기 때문이다. 여

그러나 이 같은 대몽항쟁은 오랫동안 제 평가를 받지 못했다. 역사서인 ‘고려사’나 ‘고려사절요’에는 삼별초의 봉기를 ‘좌란(左亂), 삼별초를 ‘적(賊)’ ‘역적’ ‘적당(賊黨)’이라 기록하고 있다. 즉 역적들이 일으킨 반란이라는 것이다.  
700년 동안 역사 속에서 잊혀진 진도 용장산성의 삼별초가 재조명된 것은 최제우도로 근거지를 옮겨가며 몽고와 고려의 친몽세력에 반대하여 일으킨 항몽투쟁을 말한다.  
삼별초가 진도를 새로운 거점으로 정하게 된 이유는 큰 섬일 뿐 아니라 농·수산물 이 풍부하고, 명량해협에서 해로를 차단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였기 때문이다. 여

### 삼별초(三別抄)



네 /이 땅을 지켜온 이를 모를 사람들 /아지도 들리는 저들의 함성 /삼별초는, 삼별초는 구국의 전사였네..’  
삼별초 이야기를 구슬픈 남도 가락에 담은 광의진사의 국악 오페라 '구국의 고려전사 삼별초'의 한 대목이다. 삼별초의 원혼을 달래고 잊혀져 가는 그들의 이야기를 후대에 전승하기 위해 만들었다고 한다.  
때늦은 감은 있지만 삼별초 항쟁을 기념하는 조형물도 오는 9월 진도 용장산성에 건립된다. 삼별초의 반외세·자주정신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한번쯤은 되새겨 봐야 하지 않을까. /고경석 사회2부장 ksgo@kwangju.co.kr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淸		논설주간 申培樂	
편집국장 曹庚完		편집국장 曹庚完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www.kwangju.co.kr			
편집국내 (대표 FAX 222-4918)	사회 2부 2200-692	경영지원국 2200-511	문화홍보국 2200-541
편집부 2200-672	(F A X 227-0118)	(F A X 222-8005)	(F A X 222-0195)
정리부 2200-634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마케팅부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정기부 2200-641	여론제작부 2200-679	(F A X 227-9500)	(F A X 227-9500)
사회1부 2200-612	체육팀 2200-663	디자인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F A X 222-4267)	사 진 부 2200-691	(F A X 02-773-9335)	
	조 사 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